

모스크바의 길

김 윤 기



고리키 대로

● 옛 모스크바城은 木造성벽

옛날의 모스크바城은 아주 빈약했다. 서부활극에서 보는 사막의 요새처럼 목책(木柵)으로 둘러싸운 것이 최초의 모스크바城이다. 역사도 오래돼지 않다.

약 8백여년전(1147) 모스크바公이 지금의 모스크바江 북쪽에 빙 돌아가며 나무판자로 성을 만든 것이 이 도시 역사의 시작이다. 유럽의 대도시 대부분이 10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에 비하면 모스크바는 「애기도시」다.

이 옛날 목조성벽터가 지금은 모스크바

의 도심을 싸고도는 환상도로(사도뱀야환상도로)가 되었다. 하늘에서 보면 거의 원형에 가까운 이 환상도로 안쪽에 크렘린을 비롯 소련의 핵심기관들이 들어 있다.

● 3개의 환상도로와 7개의 방사상도로

모스크바에는 3개의 환상도로가 있다. 크렘린 궁을 끼고 바깥쪽으로 한바퀴 도는 길이 첫번째 환상도로(브리발환상도로)다. 시뻘건 크렘린 담벽이 길의 한쪽면을 먹고 서있어 다소 공포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이 도로는 하늘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인다. 붉은광장 쪽을 제외한 두개의 도로변은 강을 끼고 돌아, 강변도로격이 되었다.

맨 바깥쪽 환상도로는 자동차용 고속도로다. 이 도로의 안쪽은 모스크바 시내지만 밖쪽은 시외다. 왕복 4차선의 이 환상도로에는 쉿쉿 자동차들이 고속질주하고 있고, 도로 양쪽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줄을 서고 있다.

이 3개의 환상도로를 크렘린을 중심으로 부채살처럼 퍼져나간 7개의 방사선 도로가 크로스road로 꿰뚫고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일곱개 방사상 도로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마치 일곱색의 다른 도시가 도로를 따라 생겨난 느낌이다.

● 국도 1호로 연결되는 고리키大路

붉은 광장에서 서북쪽으로 뚫린 길이 고

리키大路다. 도로의 폭은 별로 크지 않으나 옛날의 수도 페테르스부르크(레닌그라드)로 가는 국도 1호로 연결되는 1급 간선도로다.

큰 호텔들은 이 거리에 집결되어 있고, 시청도 이 길가에 있다. 소련의 국영여행사 인투어리스트 본사건물은 이 도로 어귀에 있고, 중앙전신국과 소련최대의 영화관 러시아극장도 이 거리에 있다.

고리키대로 입구 왼쪽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우에서 거대한 광고판을 달아 놓아 한국여행자들의 어깨를 조금 으쓱거리게 한다.

고리키대로에는 몇개의 중요한 광장이 있다. 첫번째의 소비에트광장에는 시청, 두번째의 푸쉬킨 광장에는 이스베스차신문과 노보스티통신사, 또우루드신문사(노동

조합기관지) 등 저너리즘의 중심부가 있다. 그 다음의 마야코프스키 광장주변에는 모스크바 극장과 차이코프스키 콘서트홀, 풍차극장, 모스소비에트극장이 몰려 있다. 문자 그대로 문화의 광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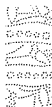
시외를 향하여 멀리 빠져 나가면 페로러시아 광장에 이른다. 프라우다신문 본사가 이곳에 있고, 백러시아 방면으로 가는 기차가 출발하는 페르러시아역도 이곳에 있다. 광장 한복판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 막심·고리키像이 서 있다.

크렘린궁 뒷쪽에서 서북향으로 뚫린 게르첸大路는 두번째 환상도로에서 끝나는 짧은 방사상 도로다. 그러나 타스통신사를 비롯, 모스크바대학, 국립콘셀바토리, 고리키의 집, 체홉의 집, 마야코프스키극장 등이 있는 아카데미한 분위기의 길이다.

●카리닌大路는 젊은이의 양지

크렘린궁 후면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카리닌大路는 젊은이의 양지다. 예술가의 알바토광장이 이곳에 있고, 유럽 최대의 서점「책의 집」과 음악당으로 유명한 오크자브, 모스크바 최대의 우크라이나호텔(3

◀붉은 광장에서의 필자. 뒤에 바실리寺院이 보인다.



층)도 이곳에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쿠데타 때 엘친을 중심으로 한 저항세력이 본부로 사용하던 러시아 공화국 의사당과 코메콘본부(37층), 레닌도서관 등 굵직한 국가기관이 이 거리에 있다. 근대적인 고층빌딩이 많고 모던한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집결한 이 거리는 모스크바의 내일을 엿보게 하는 희망의 거리다.

크렘린 서남쪽으로 뻗은 볼쇼이·비로고프카야大路는 스카야大路, 콤소몰大路, 레닌大路와 엉켜서 방사되고 있다.

모스크바올림픽이 열렸던 스타디움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에는 모스크바대학과 톨스토이의 집, 톨스토이 박물관이 있고, 겨울에도 수영을 한다는 2천명 수용의 모스크바수영장, 푸쉬킨미술관, 푸쉬킨박물관, 신비속에 묻혀 있는 노뱌데빗치수도원 등이 이곳에 있다.

붉은 광장에서 정남으로 뻗은 길이 바르샤바街道다. 흑해·카스피해까지 연결되

는 간선도로인 이 대로는 별 특징이 없는 싱거운大路다. 관광객의 발길이 이쪽으로 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

●KGB가 있는 공포의 거리 키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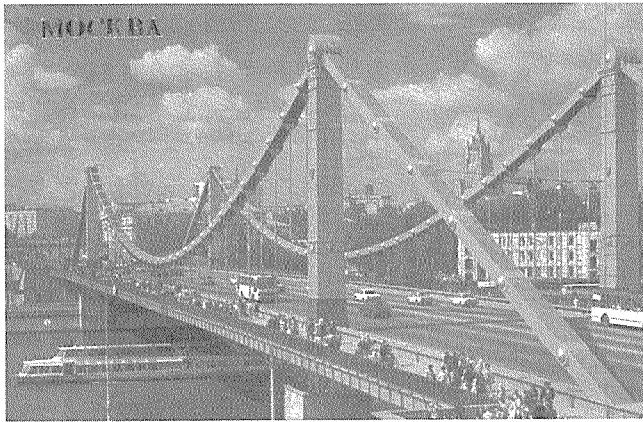
크렘린광장에서 북동쪽으로 뚫린 아주 짧은 길이 있다. 이 길이 키로프大路다. 이 길은 입구에 KGB본부가 있다. 지금은 종이호랑이가 되었지만, 한때는 소련권력의 핵심부였던 곳이다.

이 거리는 모스크바의 다른 거리와는 어딘지 분위기가 다른 느낌을 준다. 1812년 모스크바 대 화재 때, 완전 소실되었다가 18~19세기에 새로 재건되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스탈린이 한때 집무했다는 저택이 이 거리에 있고, 국가통계국, 중앙우체국, 모스크바역사 재건박물관 따위의 다소 공포분위기를 주는 건물들이 있어 친근감은 안준다.

넓게 뚫린 평화대로. ▶
마침 이날은 메이데이라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외국관광객들 뿐이다.





◀ 모스크바에 걸린 크림스키대교. 이 다리를 건너면, 모스크바의 강남 신시가지가 펼쳐진다.



이 거리의 끝에는 콤소몰광장이 있고, 모스크바에 있는 9개의 종착역중 3개역(카잔역, 알로슬라브리역, 레닌그라드역)이 이곳에 집결해 있다. 알로슬라브리역은 시베리아철도의 발착역이다. 종착역은 아니지만 카란체프역도 이 광장의 한 구석에 함께 있다.

● 러시아의 얼굴, 마르크스大路와 평화大路

마르크스大路는 방사상도로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모스크바의 심장부대road다. 붉은 광장의 북쪽을 반원형으로 빙그레도는 이 길은 게르첸大路·고리키大路·평화大路·킬로프大路의 입구들을 연결하고 있다. 말하자면大路들의 시발지다.

혁명광장, 레닌박물관, 음악박물관 등 모스크바의 얼굴들이 이 거리에 있다. 붉은 광장에서 벌어졌던 소련의 국가행사들의 퍼레이드행렬이 이 대로를 지나 크렘린궁으로 향한다.

KGB건물군은 물론, СССР(소련방각료회의장), 코스푸란(국가계획위원회) 등 공산당 시대의 권력핵심부가 이곳에 집결해 있었다.

크렘린궁의 북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평화대로는 소련의 힘을 상징하는 도로다. 우선 6차선의 넓은 길이 시원스럽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는 비덴하(국민성과박람회장)가 있다. 비덴하에는 소련의 국력을 상징하는 과학과 경제박물관이다. 80개의 건물과 300여개의 부속시설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박람회장안에는 인공위성, 로켓트 등의 최첨단우주과학기술을 과시하는 우주관을 비롯, 원자력관, 공업관, 전기관, 생물관, 의학관, 농업관, 축산관 등이 있다.

360도의 원형 스크린을 가진 켈르코라마영화관, 유리·가가린이 타고 갔던 인류 최초의 우주선 보스토크호 등도 볼 수 있다. 모스크바 관광코스중에 꼭 끼인다. [74]

〈필자=해외의학교류회장. 최신여행정보 발행인〉